

세무학회지
제8권 제3호 2007년 9월 pp.93~112
한국세무학회

석·박사 학위논문에서 「세무학연구」의 인용도에 관한 연구

오기수*

<요 약>

본 논문은 한국세무학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인 「세무학연구」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으로 「세무학연구」에서 발표된 논문이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에 얼마나 인용되는가 하는 인용도와 얼마나 빨리 인용되는가 하는 즉시성을 학술지의 반감기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세무학연구」가 세무학 관련 대학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발표된 박사학위논문의 인용도를 분석한 결과 조세법 분야의 경우 세무학연구의 논문 인용도는 33.3%이며, 세무회계 분야는 58.3%, 조세정책 분야는 25.0%이다. 전체적으로는 박사학위논문 41.3%가 「세무학연구」를 인용하였다. 석사학위논문의 인용도는 전체평균 27.2%로 박사학위논문이 인용도 보다 낮았다.

세무회계분야 학술지 문헌의 반감기가 6.4년이라고 볼 때 석·박사학위논문이 세무학연구의 논문을 인용하는 걸리는 시간이 평균 4.9년으로 관련 학술지 반감기에 비하여 신속하게 인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회계분야 석·박사학위논문이 「세무학연구」의 논문을 인용하는데 걸리는 즉시성은 평균 4.4년으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조세정책분야로 평균 5.1년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조세법분야의 경우 평균 5.8년으로 석·박사 학위논문 중 「세무학연구」의 논문을 인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회계분야의 석·박사학위논문이 관련 학술지와 같이 실무적인 특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석·박사학위논문의 인용문헌에 대한 「세무학연구」의 비중을 분석결과 석·박사학위논문이 인용한 총 문헌수는 4,033편이며, 이 중 「세무학연구」의 논문이 128편으로 전체 인용문헌에 대한 「세무학연구」의 비중은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학연구」가 관련 학위논문에 미치는 학문적 영향은 아직 낮은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세무학연구」의 논문이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약하다고 볼 수 있어, 세무학연구의 연구분야를 다양화하고 논문지도교수들의 관심을 높일 필요가 절대적이라고 본다.

<주제어> 세무학연구, 계량서지학, 학위논문, 세무회계 연구동향, 인용도

* 김포대학 세무회계정보과 부교수, okyes@kimpo.ac.kr, 011-289-8143

I. 서 론

어느 학문이든 그 학문분야의 연구발전을 위해서 학술논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논문의 발표를 통하여 기존의 학문적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기도 하고, 새로운 분야의 개척을 제시하는가 하면, 그 개척된 분야의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논문은 크게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술지인 「세무학연구」를 통하여 발표된 논문은 학술논문으로서 조세정책·조세법학·세무회계학 등의 관련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즉, 학술지의 논문은 조세정책과 행정 및 관련 산업분야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해당 학문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학위논문은 학위를 취득하려고 제출하는 논문으로서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학위논문은 대학원의 공식적인 학위과정을 통해 세무학 분야의 본격적인 전문연구자, 실무전문가가 배출되는 과정이자 학문적 성숙의 기저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 성과물이다. 따라서 학위논문은 세무학의 학문발전에 있어 시발점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세무학 분야의 학위논문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세무학의 연구 분야는 크게 조세정책·조세법학·세무회계학 내지 세무관리학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성과 복잡성을 지닌 세무학의 발전을 위하여 1990년에 한국세무학회가 창립된 후 학회지로 「세무학연구」를 발간해 오으로써 지금까지 세무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조세정책과 조세입법, 그리고 조세행정 등에도 그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세무학연구」가 세무학의 학문적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세무학연구」가 세무학의 학문적 발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석·박사학위논문의 「세무학연구」의 논문에 대한 인용도와 즉시성 분석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한국세무학회의 대표적 학술지인 「세무학연구」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으로 「세무학연구」에서 발표된 논문이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에 얼마나 인용되는가하는 인용도와 얼마나 빨리 인용되는가하는 즉시성을 분석함으로써 「세무학연구」가 세무학 관련 대학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먼저 세무학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문헌적으로 살펴보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각 대학에서 발표된 학위논문으로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석·박사논문의 참고문헌을 통계적 기법으로 처리하고, 서지학적 분석으로 「세무학연구」에 발표된 논문이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에서 인용도와 그 즉시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세무학연구」의 논문 현황 및 선행연구

1. 「세무학연구」의 논문 현황

학술지로서 「세무학연구」는 한국세무학회가 창립된 1990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05년까지 총307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조세법, 세무회계, 조세정책 등 세무학 관련 학문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조세관련 정책과 집행, 조세입법 등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표 1>은 연도별 「세무학연구」의 발표논문 편수 현황이다. 1995년까지는 매년 1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1996년 이후부터는 매년 24편 정도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세무학연구」는 1999년 12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로 선정된 후 2004년 12월에 등재지로 선정된 대표적인 세무관련 전문 학술지이다.

<표 1> 연도별 「세무학연구」 발표논문 편수 현황

연 도	발행논문편수	비 고
1990	12	
1991	10	
1992	9	
1993	24	
1994	—	
1995	10	
1996	25	
1997	22	
1998	24	
1999	26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선정
2000	22	
2001	26	
2002	27	
2003	22	
2004	24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선정
2005	24	
합계	307	

<표 2>는 「세무학연구」에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세무학의 주된 연구분야인 조세법과 세무회계, 그리고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기업회계와 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분류한 것이다. 기타항목에는 세무조사를 비롯한 세무행정, 세무교육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307편의 논문 중 조세법분야는 77편으로 25.1%이며, 세무회계분야는 89편으로 29.0%이고, 조세정책 분야는 50편으로 16.1%이다. 그리고 기업회계와 기타의 경우 91편으로 29.6%이다. 결과에 따르면 「세무학연구」의 발표논문 중 세무회계분야 논문이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다음이 조세법이고, 조세정책분야의 연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세무학연구」 발표논문의 연구분야 분석

(단위 : 편수)

연구분야 \ 발행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세무회계	1	1	—	7	—	2	10	9	11
조세정책	4	3	2	7	—	3	3	2	2
조세법	2	2	5	2	—	2	10	6	7
기업회계 · 기타	5	4	2	8	—	3	2	5	4
합계	12	10	9	24	—	10	25	2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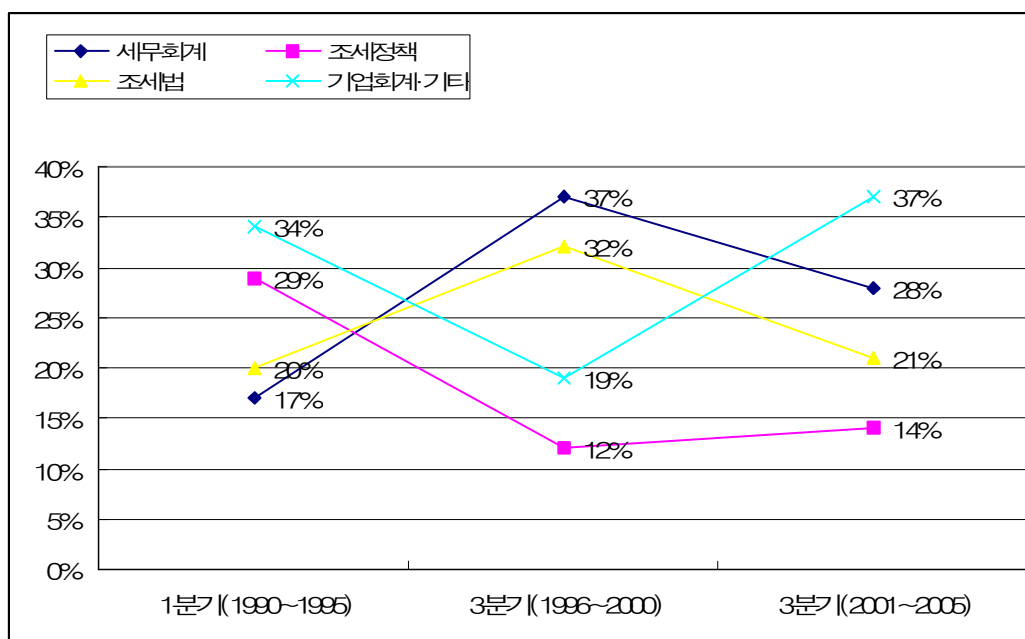
연구분야 \ 발행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세무회계	4	10	8	9	7	5	5	89(29.0)
조세정책	4	3	4	4	3	1	5	50(16.3)
조세법	10	5	5	6	4	6	5	77(25.1)
기업회계 · 기타	8	4	9	8	8	12	9	91(29.6)
합계	26	22	26	27	22	24	24	307

<그림 1>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를 3분기로 나누어 「세무학연구」 논문의 분야별 구성비 추세를 나타낸 그림이다. 세무회계분야의 경우 1분기에는 제일 낮은 17%이었지만 2분기에는 37%로 급격히 증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분기에는 28%로 약간 낮아졌다. 조세정책분야의 경우 1분기에는 두번째인 29%이었지만 2분기에는 12%로 급락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3분기에도 14%로 가장 낮다. 조세법분야의 경우 1분기에는 20%이었지만 2분기에는 32%로 급증하여 두 번째의 구성비를 나타냈으며 3분기에도 21%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회계 · 기타분야의 경우 1분기에는 34%로 가장 높지만 2분기에는 19%로 급락하였고 3분기에는 다시 상승하여 37%로 첫번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석에 의하면 1분에는 기업회계 · 기타분야의 경우 기업회계부분의 논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3분기에는 기업회계부분의 논문은 줄어들고 세무조사를 비롯한

세무행정부분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세무학연구」가 발간되기 시작하면서 세무회계 분야의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세정책 분야의 연구는 구성비로 살펴볼 때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 앞으로 개선하여 할 부분이라고 본다. 조세정책분야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세무학연구」에 실린 논문이 실증분석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림 1〉 세무학연구 논문의 분야별 구성비 추세



2. 「세무학연구」에 관한 선행연구

세무학연구에 관한 선행연구는 연구방법론과 연구동향, 그리고 서지학 분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우택(1990)은 세무학과 세무학연구방법론 논문에서 세무학의 연구분야를 재정학적 연구, 경제학적 연구, 법률학적 연구, 회계학적 연구, 경영학적 연구 및 행정학적 연구로 분류한 다음 각 연구분야의 목적과 연구내용을 개괄하였다. 세무학의 연구방법에 관해서는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법을 검토하고 조세법학과 세무회계학의 접합을 논의하고 있다.

고성삼·김지범(1996)은 세무학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서 과거 10년간의 우리나라와 미국의 세무학 관련 연구논문을 살펴보았다. 1971년 12월부터 1996년 6월까지 우리나라 한국경영학회, 한국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학회, 한국재정학회의 학회지인 경영

학 연구, 회계학연구, 세무학연구, 한국조세연구, 재정론집에 수록된 조세관련 연구들을 연구분야와 연구방법별로 분류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 조세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의 조세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3편의 논문 중 108편(53.2%)이 한국조세연구에 발표되었으며,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로는 재정학적 연구 중 조세정책에 대한 연구(38.4%),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방법으로는 서술적 연구방법(63.0%) 이었다. 연구분야와 연구방법간의 관계를 보면 재정학적 연구, 법률학적 연구, 회계학적 연구 모두 서술적 연구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조세 교육연구는 서술적 연구와 실험실연구에 의해 이루어 졌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1996년까지의 연구는 조세의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조세정책 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김 혁 · 김수로(1997)는 1985년부터 1994년의 기간(우리나라 「세무학연구」는 1990-1995년임) 동안 우리나라의 「회계학연구」와 「세무학연구」를 분석하였고, 미국은 Accounting Review와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논문의 수는 우리나라는 52편이며 미국은 137편이었으며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틀로써 연구주제와 연구방법론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주제는 크게 조세정책연구, 세무실무연구, 세무회계연구, 세무교육연구, 세무학연구방법론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연구방법론은 크게 10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는 실험실연구, 질문서 및 서베이 연구, 시뮬레이션 및 사례검토, 자본시장연구, 횡단자료분석, 실증이론연구, 통계모델연구, 경제 및 분석모델연구, 전문가시스템연구 및 세법의 논리성 검토였다. 연구동향은 먼저 논문의 주제별로 분석한 후 방법론적인 특성을 분류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연구와 미국의 연구를 비교하여 연구방법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밝히려고 하였다.

이준규 · 김갑순(2001)은 일정 학문분야의 연구동향을 문헌의 서지적 현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발행된 세무회계분야의 대표적 학술지인 「세무학연구」를 대상으로 계량서지학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세무회계연구의 동향과 흐름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세무회계 연구주제를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등 5개 분야로 분류하고, 연구방법론을 서술적 연구 등 7개 분야로 분류하여 내용분석을 통한 개념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원문헌분석을 통해 연구기간 동안의 세무회계분야의 저자유형, 연구주제, 연구주제 및 방법론을 분석하였고, 인용문헌 분석을 통해 세무회계연구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인용문헌의 형태, 저자, 학술지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연구기간을 1996년을 기준으로 전 · 후반기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세무회계연구 흐름의 동향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공동연구와 비정책적 주제의 연구, 통계모형을 이용한 연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세무학연구」와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등의 세무회계 전문학술지의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이준규 · 김갑순(2001)은 세무회계연구의 5개 연구주제를 조세정책, 조세순응, 재무회계에서의 세무변수, 세무관리 또는 세무의사결정, 기타 : 세무교육, 연구방법론 등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각 연구주제에 대하여 「세무학연구」 153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표 3>은 그 결과이다. <표 2>에 의하면 전체기간에 대한 연구주제의 비중은 조세정책(49.7%), 재무회계에서의 세무변수(28.1%), 조세

순응(10.5%), 세무관리 또는 세무의사결정(7.2%), 기타(4.6%)의 순이었다. 연구의 절반 정도가 조세 정책에 관한 연구라는 사실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세무학의 강한 정책적 특성이 세무 회계연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주제에 있어서의 전반기와 후반기의 추세변동을 관찰해 보면, 조세순응에 대한 연구 비중이 4.2%에서 13.3%로 3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세정책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모두의 연구비중이 약간씩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조 세정책분야의 연구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전반기에 58.3%에서 후반기에는 45.7%로 감소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세무회계연구에서 비조세정책분야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증가 하고 있음에 대한 직접적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2>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세무관리 또는 세무의사 결정과 관련된 Scholes 와 Wolfson(1992)의 접근방법에 근거한 연구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도 연구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¹⁾.

<표 3> 연주주제 분석

(단위 : 편수, %)

연구주제	전반기(1990~1995년)	후반기(1996~2000년)	전체기간
조세정책	28 (58.3)	48 (45.7)	76 (49.7)
조세순응	2 (4.2)	14 (13.3)	16 (10.5)
재무회계에서의 세무변수	13 (27.1)	30 (28.6)	43 (28.1)
세무관리 또는 세무의사결정	3 (6.3)	8 (7.6)	11 (7.2)
기타 : 세무교육, 연구방법론 등	2 (4.2)	5 (4.8)	7 (4.6)
합 계	48 (100)	105 (100)	153 (100)

본 논문은 이러한 「세무학연구」에 관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세무학연구」가 세무학 관련 대학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학위논문은 학위과정을 통해 세무 학 분야의 본격적인 전문연구자, 실무전문가가 배출되는 과정이자 학문적 성숙의 기저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 성과물이기 때문에 「세무학연구」가 세무학 관련 대학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 이준규·김갑순 2001, 285

Ⅲ. 학위논문에서 「세무학연구」의 인용도와 즉시성 분석

1. 분석대상 학위논문의 기본통계

본 연구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각 대학에서 발표된 학위논문으로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석·박사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6년 7월 말 현재 학위논문 주제어 검색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세무학관련 석·박사학위논문은 총 387편이며, 그 중 조세법 관련 학위논문은 99편이며, 세무회계 관련 학위논문은 188편이고, 조세정책관련 학위논문은 100편이다. 소장 논문 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석·박사 학위논문은 총 260편이다. 이는 국회도서관이 2006년 7월말 현재 납본 받아 소장하여 자료검색 사이트에서 학위논문을 주제어별로 조세법, 세무회계, 조세정책으로 검색한 자료 중 원문서비스가 가능한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대상 논문은 조세법, 세무회계, 조세정책의 세 분야별로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학위논문의 약 67%이다.

<표 4>는 분석대상 박사논문의 편수와 연구분야별 구성비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대상 260편 학위논문 중 박사논문은 29편으로 11.2%이며, 나머지 88.8%인 231편이 석사논문이다.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분야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총 29편중 조세법 분야는 9편으로 31.0%, 세무회계는 12편으로 41.3%, 조세정책분야는 8편으로 27.7%이다. 박사학위논문의 구성비의 경우 세무회계분야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조세정책은 약간 낮게 나타났다.

<표 4> 분석대상 박사논문 편수와 연구분야별 구성비

(단위 : 편수, %)

연구분야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구성비)
조세법	1	3	1	2	2	9(31.0%)
세무회계	2	3	2	2	3	12(41.3%)
조세정책	3	2	1	1	1	8(27.7%)
합 계	6	8	4	5	6	29(100%)

<표 5>는 분석대상 석사논문의 편수와 연구분야별 구성비를 분석한 것이다.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포함) 논문과 특수대학원 논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석사논문 231편 중 26.5%가 일반대학원논문이며, 2배 이상인 62.3%가 특수대학원논문으로 특수대학원논문이 많이 발표됨을 알 수 있다.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분야별 구성비를 보면 총 231편 중 조세법 분야는 58편으로 25.2%, 세무회계는 114편으로 49.3%, 조세정책분야는 59편으로 25.2%이다. 석사학위논문의 구성비의 경우 박사학위와 비슷하게 세무회계분야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조세법과 조세정책이 약간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석사학위논문을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차

이가 크게 나타난다.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69편중 조세법 분야는 22편으로 31.9%, 세무회계는 23편으로 33.3%, 조세정책분야는 24편으로 34.8%로 세 분야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조세정책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특수대학원 석사논문의 경우 162편중 세무회계분야가 91편 56.2%로, 조세법분야 36편 22.2% 조세정책분야는 35편 21.6%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분석대상 석사논문의 편수와 연구분야별 구성비

(단위 : 편수, %)

연구분야	대학원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구성비)
조세법	일반대학원*	5	5	0	11	1	22
	특수대학원	5	5	13	9	4	36
	소 계	10	10	13	20	5	58 (25.2%)
세무회계	일반대학원*	5	4	9	3	2	23
	특수대학원	20	11	28	19	13	91
	소 계	25	15	37	22	15	114 (49.3%)
조세정책	일반대학원*	8	7	4	3	2	24
	특수대학원	12	7	8	7	1	35
	소 계	20	14	12	10	3	59 (25.2%)
합 계	일반대학원*	18	16	13	17	5	69 (26.5%)
	특수대학원	37	23	49	35	18	162 (62.3%)
	총 계	55	39	62	52	23	231

* 전문대학원 포함

2. 학위논문 인용도 분석

이준규·김갑수(2001)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의 세무회계연구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세무회계분야의 대표적 학술지인 「세무학연구」에 수록된 모든 논문을 계량서지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단, 이들 논문 중 3개 이하의 인용문헌을 가지거나, 세무회계연구주제로 분류할 수 없는 비세무회계 논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11년 동안에 「세무학연구」에 게재된 총 183편의 논문 중 153편의 논문이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었다. 그 분석결과 153편의 논문이 3,781개의 문헌을 이용하여 한편의 논문이 평균적으로 24.7개의 문헌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무학연구」에 인용된 학술지의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304종류의 학술지 중 세무회계분야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학술지는 178번 인용된 Accounting Review와 158번 인용된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57번 인용된 「세무학연구」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반기(1990~1995)·후반기(1996~2000)로 나누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주목할 만한 사실은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세무학연구」가 인용빈도수 151번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과 National Tax Journal 등과 같은 세무회계 전문학술지가 인용빈도 순위 상위를 주로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²⁾. 이러한 결과는 「세무학연구」의 전문성과 학문적 영역이 구체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 대한 직접적 증거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세무학연구」의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인용되는 정도를 분석한 것이라면, 본 논문은 「세무학연구」가 학위논문에서 인용되는 정도를 분석하여 세무학 관련 대학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표 6>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발표된 박사학위논문 중 분석대상 박사학위논문을 「세무학연구」의 주된 연구분야별로 그 인용도를 분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29편의 박사논문 중 12편이 「세무학연구」 논문을 1편 이상 인용하여 41.3%의 인용도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 인용도를 분석하면 조세법 분야의 경우 9편의 박사논문 중 3편이 「세무학연구」의 논문을 인용하여 인용도는 33.3%이며, 세무회계 분야의 경우 12편의 박사논문 중 7편이 「세무학연구」의 논문을 인용하여 인용도는 58.3%이다. 그리고 조세정책 분야의 경우 8편의 박사논문 중 2편이 「세무학연구」의 논문을 인용하여 인용도는 25.0%이다. 그 결과 세무회계 분야가 58.3%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그 다음이 조세법 분야로 33.3%이며, 조세정책 분야의 인용도는 25.0%로 낮게 나타났다.

<표 6> 박사학위논문 「세무학연구」 인용도

(단위 : 편수)

연구분야	논문편수						인용편수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인용도)
조세법	1	3	1	2	2	9	1	1	0	1	0	3(33.3%)
세무회계	2	3	2	2	3	12	0	2	1	1	3	7(58.3%)
조세정책	3	2	1	1	1	8	1	0	0	1	0	2(25.0%)
전체	6	8	4	5	6	29	2	3	1	3	3	12(41.3%)

<표 7>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발표된 석사학위논문 중 분석대상 석사학위논문을 주된 연구분야별로 인용도를 분석한 것이다. 석사논문의 인용도 역시 일반대학원논문과 특수대학원논문을 구별하여 분석하였다. 일반대학원 석사논문을 분석하면 조세법 분야의 경우 22편의 석사논문 중 6편이 「세무학연구」 논문 1편 이상을 인용하여 인용도는 27.2%이며, 세무회계 분야의 경우 36편의 석사논문 중 11편이 인용하여 인용도는 47.8%이다. 그리고 조세정책 분야의 경우 24편의 석사논문 중 11편이 인용하여 인용도는 45.8%이다. 그 결과 일반대학원 석사논문의 전체적인 「세무학연구」 인용

2) 이준규·김갑순 2001, 281-295

도는 40.5%이며, 가장 높은 인용도를 보이는 분야는 47.8%인 세무회계분야이며 조세정책분야는 세무회계분야와 비슷하다. 가장 낮은 인용도는 나타내는 분야는 조세법분야이다.

특수대학원 석사논문을 분석하면 조세법 분야의 경우 36편의 석사논문 중 7편이 「세무학연구」 논문을 인용하여 인용도는 19.4%이며, 세무회계 분야의 경우 91편의 석사논문 중 18편이 인용하여 인용도는 19.7%이다. 그리고 조세정책 분야의 경우 35편의 석사논문 중 10편이 인용하여 인용도는 28.5%이다. 특수대학원 석사논문의 전체적인 인용도는 21.6%로 일반대학원 석사논문보다 「세무학연구」 논문을 훨씬 적게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인용도를 보이는 분야는 28.5%인 조세정책분야이며, 조세법분야와 세무회계분야는 20%이내의 인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 결과는 231편의 석사논문 중 63편의 논문이 「세무학연구」 논문을 1편 이상 인용하여 인용도는 27.2%로 박사학위논문보다 인용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박사학위논문과 비슷한 인용도를 보이고 있다.

〈표 7〉 석사학위논문의 「세무학연구」 인용도

(단위 : 편수)

연구 분야	구 분	논문편수						인용편수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인용도)
조세법	일반대학원*	5	5	0	11	1	22	1	3	0	2	0	6(27.2%)
	특수대학원	5	5	13	9	4	36	1	1	1	3	1	7(19.4%)
	소계	10	10	13	20	5	58	2	4	1	5	1	13(22.4%)
세무회계	일반대학원*	5	4	9	3	2	23	3	2	5	1	0	11(47.8%)
	특수대학원	20	11	28	19	13	91	2	3	6	4	3	18(19.7%)
	소계	25	15	37	22	15	114	5	5	11	5	3	29(25.4%)
조세정책	일반대학원*	8	7	4	3	2	24	2	5	2	2	0	11(45.8%)
	특수대학원	12	7	8	7	1	35	4	3	2	1	0	10(28.5%)
	소계	20	14	12	10	3	59	6	8	4	3	0	21(35.6%)
전체	일반대학원*	18	16	13	17	5	69	6	10	7	5	0	28(40.5%)
	특수대학원	37	23	49	35	18	162	7	7	9	8	4	35(21.6%)
	합계	55	39	62	52	23	231	13	17	16	13	4	63(27.2%)

* 전문대학원 포함

3. 「세무학연구」 반감기와 학위논문 인용의 즉시성

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최신성이 있는 자료를 인용하는 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문헌의 반감기³⁾를 측정하였다. 반감기(half-life)는 원문헌이 총 인용빈도수의 50%를 인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즉 연도수를 말한다. 즉 A라는 학술지가 2001년에 2000, 1999, 1999, 1997, 1996, 1994, 1989, 1973에 출판한 문헌을 인용했다면 총 인용 빈도수의 50%가 되는 연도가 바로 1997년이므로 반감기는 4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B라는 학술지의 반감기가 8년이라면, A학술지의 성격은 시류의 영향을 받는 응용적이라고 할 수 있고, B학술지는 이론 중심의 개론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문의 분야별로 문헌의 반감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수행되어 왔다. 반감기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순수과학분야가 응용과학분야보다 반감기가 더 길고 사회과학분야가 자연과학분야보다 길거나 같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분야의 반감기는 6년에서 7년으로, 자연과학분야의 반감기는 5년에서 6년으로 측정되었다. 이준규·김갑순은 인용문헌의 반감기를 측정하여 「세무학연구」의 특성과 세무회계 분야의 전반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8>에서와 같이 세무회계분야의 평균 반감기는 6.4년으로 산출되었다.

<표 8> 세무학관련 학술지 반감기

학술지명	이용률감소인자(a)	반감기(년)
회계학연구	0.939977	11.2
경영학연구	0.894323	6.2
회계저널	0.908582	7.2
전 체	0.935207	10.3
「세무학연구」	0.897354	6.4

주) 「세무학연구」를 제외한 결과는 서은경과 한인구(1998)의 결과를 인용한 것임. 표에서 ‘전체’의 의미는 회계학연구, 경영학연구, 회계저널의 회계학연구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의미함.

<표 8>에 제시되어 있는 서은경·한인구(1998)의 결과를 보면 「회계저널」은 7.2년, 그리고 나머지 세 학술지에 실린 전체 회계학 논문의 반감기를 10.3년으로 산출하였다. 서은경과 한인구(1998)는 「회계학연구」의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난 원인을 회계학사와 관련된 논문들이 복식부기의

3) 국내외의 회계학·세무학 관련 서지학적 연구논문(2002년 이전 논문)에서는 Burton and Keble(1960)의 논문에서 사용한 반감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Endre Száva-Kováts의 “Unfounded attribution of the ‘Half-life’ index-number of literature obsolescence to Burton and Keble(2002)” 논문⁴⁾에 의하면 그들은 나중에 반감기라는 단어를 폐기하였고 대신 “median age”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2002년 이후 국내 회계학·세무학 관련 서지학적 연구논문이 없어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없어 반감기(half-life)를 그대로 사용한다.

원조인 Pacioli의 1400년대의 논문을 포함하여 오래된 문헌을 인용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회계학연구」, 「경영학연구」, 「회계저널」에 실린 회계학 논문의 평균 반감기가 평균 10.3년으로 「세무학연구」의 세무회계학 논문에 대한 평균 반감기인 평균 6.4년보다 높은 것은 세무회계학분야가 상대적으로 다른 회계학 분야에 비해 실용적이고 응용과학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⁴⁾.

<표 9>은 「세무학연구」의 논문이 석·박사 학위논문에서 인용되는 연수차이 즉, 즉시성을 분산 분석(ANOVA)한 것이다. 이는 세무학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이 얼마나 신속하게 「세무학연구」의 논문을 인용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한 것이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학위논문의 세 분야의 즉시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차이는 학위논문 발행연도에서 인용한 「세무학연구」 논문 발표연도를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분야별로 분석하면 세무회계분야 석·박사 학위논문이 「세무학연구」의 논문을 인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4년으로 가장 빨리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조세정책분야로 평균 5.1년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조세법분야의 경우 평균 5.8년으로 석·박사 학위논문 중 「세무학연구」의 논문을 인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학위논문의 「세무학연구」 인용에 대한 즉시성 분석(조세법)

분산 분석 : 일원 배치법

요약표

인자의 수준	관측수	합	평균	분산
조세법	67	385.60	5.755224	11.80251
세무회계	126	555.84	4.411429	5.379187
조세정책	67	344.35	5.139552	8.55898
합 계	260	1285.79	4.945346	

분산 분석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비	P-값	F 기각치
처리	82.39097	2	41.19548	5.250938	0.00582	3.030925
잔차	2016.257	257	7.845357			
계	2098.648	259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존연구의 반감기와 비교분석하여 볼 수 있다. 본 논문이 분석한 결과는 석·박사 학위논문에서 「세무학연구」의 논문을 인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전체 평균은 4.9년이므로 석·박사 학위논문에 인용되는 「세무학연구」의 논문은 다른 학술논문보다 신속성이 높다고 볼 수

4) 이준규·김갑순 2001, 282-293

있다. 세무회계분야의 학술지 반감기가 6.4년이라는 것은 세무회계분야의 논문에서 인용되는 논문의 평균 인용연수 차이가 6.4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석·박사학위논문이 「세무학연구」의 논문을 인용하는 걸리는 시간이 평균 4.9년이므로 세무회계분야 학술지의 반감기 보다는 신속하게 인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에서 석·박사 학위논문에서도 세무회계분야가 조세법 분야나 조세정책 분야보다 인용연수가 짧은 것은 학술지 중 세무회계학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실용적이고 응용과학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감기가 짧다는 기존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본다.

IV. 세무학연구의 학위논문에 미치는 영향력과 향상방안

<표 10>는 석·박사학위논문 1편당 인용문헌 편수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분야별로 살펴 볼 때 학위논문 1편당 인용문헌 수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석·박사학위논문 260편이 인용한 총 문헌수는 4,033편으로 평균적으로 학위논문 1편당 15.5편의 문헌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세무학연구」의 경우 학술지 한편의 논문이 평균적으로 24.7편의 문헌을 인용한 것으로 나왔는데, 석·박사 학위논문의 경우 평균 15.5편인 것은 학위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높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석·박사학위논문이 인용한 문헌의 유형을 살펴보면 학술논문, 단행본, 학위논문, 통계자료 등 다양하지만 그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은 학위논문이었다. 학위논문을 쓸 때 다른 학위논문을 참고하여 인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다 좋은 연구를 위해서 학술논문의 인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 10> 석·박사학위논문 1편당 인용문헌 편수

(단위 : 편수)

연구분야	학위논문수	인용 문헌수	학위논문 1편당 인용 문헌수
조세법	67	1,027	15.3
세무회계	126	1,941	15.4
조세정책	67	1,065	15.9
전 체	260	4,033	15.5

<표 11>은 석·박사학위논문의 인용문헌에 대한 「세무학연구」의 비중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석·박사학위논문이 인용한 총 문헌수는 4,033편이며 이 중 「세무학연구」 논문이 128편으로 전체 인용문헌에 대한 「세무학연구」의 비중은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학연구」가 학위논문에 미치는 학문적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느 학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방적일 수 없다. 주는 주체와 받는 주체가 모두 노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간 「세무학연구」를 통하여 발표된 논문이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많은 성장을 하였다고 본다면 학위논문에도 기여한 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의 작성을 지도하는 교수 등이 학생들에게 「세무학연구」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른 한편에서는 「세무학연구」가 세무학 분야의 학문적인 리더로서 학위논문의 작성에 필요한 연구주제 및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 11〉 석·박사학위논문의 인용문헌에 대한 「세무학연구」의 비중

연구분야	① 인용 문헌수	② 세무학연구 인용 편수	인용문헌에 대한 「세무학연구」의 비중(②/①)
조세법	1,027	30	2.9%
세무회계	1,941	61	3.1%
조세정책	1,065	38	3.5%
전 체	4,033	129	3.2%

〈표 12〉은 「세무학연구」를 인용한 석·박사 학위논문 1편당 「세무학연구」 논문 인용편수를 분석한 것이다. 석·박사학위논문이 「세무학연구」 논문을 인용한 경우 인용편수는 조세법분야의 경우 1.87편, 세무회계분야는 1.69편, 조세정책분야는 1.65편으로 전체 평균 1.72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11%정도 「세무학연구」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학위논문의 「세무학연구」 인용도는 평균 41.3%로 높게 나타났지만, 석사학위논문의 「세무학연구」 인용도는 평균 27.2%로 학위논문 4편중 1편만이 「세무학연구」를 인용하고 있다. 일반 석사학위논문은 평균 40.5%가 「세무학연구」를 인용하였지만 특수대학원의 경우 21.7%에 불과하여 논문의 질적인 수준을 위하여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인용한 석·박사학위 논문이 「세무학연구」 인용한 논문 수가 평균 1.72편에 불과하다는 것은 「세무학연구」가 학위논문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12〉 석·박사학위논문의 「세무학연구」 평균 인용 편수

연구분야	인용학위논문 편수	총세무학연구 인용 편수	학위논문1편당 인용논문편수	인용비율
조세법	16	30	1.87	12.2%
세무회계	36	61	1.69	11.0%
조세정책	23	38	1.65	10.4%
전체	75	129	1.72	11.1%

지금까지 「세무학연구」가 세무학 분야의 석·박사학위논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그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학연구」가 세무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점을 감안한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무학연구」가 세무학 분야의 석·박사학위논문에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학 분야의 석·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등은 「세무학연구」에 관해서 대학원생들이 평소부터 관심을 갖도록 학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세무학연구」의 논문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학위논문에 「세무학연구」의 논문을 많이 인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세무학회에서도 세무학 분야의 대학원생이 「세무학연구」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대학원생들을 위한 세미나와 논문발표대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무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분야에도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다.

셋째, 「세무학연구」의 논문들이 대학원생의 교육과 학위논문의 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분야 및 연구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세무회계분야를 비롯한 모든 세무학 연구분야에서 학위논문의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르는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세무학연구」가 학문적 접근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세무학에 대한 연구가 다른 학문 분야보다 활발하지 못한 것은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세무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어려움이 첫 번째일 것이다. 세무학 관련 연구자료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이 세무학 연구에 걸림돌이 된다고 본다⁵⁾. 자본시장에 관한 회계연구처럼 공시된 많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⁶⁾와는 달리, 세무정보는 개인과 기업들의 비밀로 공식적으로는 접근하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정보 자료 대부분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실정에서 실증분석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세무학 연구가 법조문이나 제도의 합리성 여부를 논의하고 외국제도와 비교를 통해서 개선방향을 찾고 있는 사실이 실증자료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학위논문의 경우 세무학의 다양한 분야만큼이나 그 연구영역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등 과세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와 통계 등이 지금보다 다양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세무학연구」 연구방향이 실증분석 중심하에 법리적으로나 조세사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4조 【감사보고서등의비치·공시등】 ①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비치·공시하여야 하며, 이 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V. 결 론

본 논문은 한국세무학회의 「세무학연구」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으로 「세무학연구」에 발표된 논문이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에서 얼마나 인용되는가하는 인용도와 얼마나 빨리 인용되는가하는 즉시성을 반감기와 비교 분석하였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분야별 구성비를 보면 조세법 분야는 31.0%, 세무회계는 41.3%, 조세정책분야는 27.7%이다. 석사학위 논문의 구성비는 조세법 분야는 25.2%, 세무회계는 49.3%, 조세정책분야는 25.2%로 나타났다. 석사학위논문의 구성비의 경우 박사학위와 비슷하게 세무회계분야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조세법과 조세정책이 약간 낮게 나타났다.

박사학위논문의 인용도를 분석한 결과 조세법 분야의 경우 「세무학연구」 논문의 인용도는 33.3%이며, 세무회계 분야는 58.3%, 조세정책 분야는 25.0%이다. 전체적으로는 박사학위 논문 41.3%가 「세무학연구」를 인용하였다.

석사학위논문의 인용도는 전체평균 27.2%로 박사학위논문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박사학위논문과 비슷한 인용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대학원 석사논문의 「세무학연구」 논문 인용도는 27.2%이며, 세무회계 분야의 경우 47.8%이고, 조세정책 분야의 경우는 45.8%이다. 특수대학원 석사논문의 조세법 분야의 경우는 19.4%이며, 세무회계 분야의 경우는 19.7%이다. 그리고 조세정책 분야의 경우는 28.5%로 4편중 1편 정도만이 「세무학연구」를 인용하고 있다. 특수대학원의 경우 논문의 질적인 수준을 위하여 「세무학연구」의 인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무회계분야 문헌의 반감기가 6.4년이라고 볼 때 석·박사학위논문이 「세무학연구」를 인용하는 걸리는 시간이 평균 4.9년으로 관련 학술지의 반감기에 비하여 신속하게 인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무회계분야 석·박사 학위논문이 「세무학연구」의 논문을 인용하는데 걸리는 즉시성은 평균 4.4년으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조세정책분야로 평균 5.1년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조세법분야의 경우 평균 5.8년으로 석·박사 학위논문 중 「세무학연구」의 논문을 인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무회계분야가 보다 실무적인 특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세무학연구」의 경우 한편의 논문이 평균적으로 24.7편의 문헌을 인용한 것으로 나갔는데, 석·박사 학위논문의 경우 평균 15.5편의 문헌을 인용한 것은 다소 낮은 것으로 학위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높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석·박사학위논문의 인용문헌에 대한 「세무학연구」의 비중을 분석결과 석·박사학위논문이 인용한 총 문헌수는 4,033편이며, 이 중 「세무학연구」 논문이 128편으로 전체 인용문헌에 대한 「세무학연구」의 비중은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학연구」가 학위논문에 미치는 학문적 영향은 아직 낮은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석·박사학위논문의 「세무학연구」 인용도는 평균 28.8%로 낮다고 보며, 그 인용한 논문 수가 평균 1.72편에 불과하다는 것 역시 논문의 질적 수준을 위하여 앞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한국세무학회의 「세무학연구」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으로 「세무학연구」에 발표된 논문이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에서 얼마나 인용되는가하는 인용도와 얼마나 빨리 인용되는가하는 즉시성을 관련 학술지의 반감기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세무학연구」가 세무학 관련 대학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세무학연구」가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약하다고 볼 수 있어 연구분야를 다양화하고 논문지도교수들의 관심을 높일 필요가 절대적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고성삼·김지범. 1996. “조세분야의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우리나라 관련학회의 연구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8호 : 177—191.
- 김 혁·김수로. 1997. “세무학연구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0호 : 271—318.
- 박수용. 2002. 「한국 연구자의 2001년도 SCI인용지수분석」 교육정책연구 22—특—08.
- 서은경·한인구. 1998. “회계학연구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회계연구 제23권 제3호 : 182—209.
- 이준규·김갑순. 2001. “세무회계연구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세무학연구 제17호 : 271—304.
- 「학술정보자료집」. 1996.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
- 이우택. 1990. “세무학과 세무학연구방법론”. 세무학연구 제1호 : 25—44.
- 최명근. 1998. 「세무학 이해」. 세학사.
- Burton, R.E. · R.W.Kebler. 1960. “The Half—Life of Some Scientific and Technical Literature.” American Documentation 11(1) : 18—22
- Endre Száva—Kováts. 2002. “Unfounded attribution of th “Half—life” index—number of literature obsolescence to Burton and Kebler : A literature science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 53, Issue13, Nov. : 1098—1105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A Study on the Citation Degree of Korean Journal of Taxation in the Master's and Doctoral Dissertations

Ki-Soo Oh*

— <Abstract> —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Korean Journal of Taxation on taxation-related graduate study and suggest its future development with method of comparison and analysis of half-life period of literature.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find out how much (citation degree) and how quickly (citation immediacy) the papers included in Korean Journal of Taxation publish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Taxation have been cited in the master's and doctoral dissertations.

The results of citation degree show that 41.3 percent and 27.2 percent of doctoral and master's dissertations, respectively, cited Korean Journal of Taxation and as a source of reference during the period of from 2001 through 2005.

Considering that the half-life of literature of a tax accounting area is 6 years and 4 months, it took an average of 4.9 years of half-life period for the Korean Journal of Taxation to be cited with swiftness in the master's and doctoral dissertations. An average of 4.4 years of immediacy shows the most rapidity for the master's and doctoral dissertations of a tax accounting area in order to cite Korean Journal of Taxation. Next, the half-life period of a tax policy area turned out to be 5.1 years, which reveals more practical characteristics of a tax accounting area.

The analysis results of the portion of Korean Journal of Taxation in the bibliography of the master's and doctoral dissertations show that out of 4,033 citations, 128 papers of Korean Journal of Taxation were cited. This represents 3.2 percent. This low academic influence of Korean Journal of Taxation on the master's and doctoral dissertations needs to be improved in the future.

<Key words>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Bibliometric Analysis, Tax Accounting Research Trends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Tax & Accounting Information, Kimpo College